

2010년 한해에도 가스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LPG업계의 담합판정으로 비난 여론이 급등하고 있으며, 기존 LPG 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국내 프로판 수요는 감소세 등 LPG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LPG업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LPG 경쟁력확보와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LPG시장 안정대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양해구 사무관
가스산업과



유통구조 합리화 신규 수요 확대 등 정책목표 중점 추진

2009년 LPG업계는 안팎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로 기억됩니다.

2009년 하반기 공정위는 외형상의 가격일치 및 리니언시(자진신고제) 등을 근거로 LPG공급업체의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사상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로 인해 LPG업계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LPG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LPG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추진한 용기재검주기 연장 등이 관련업계의 의견 차이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내 LPG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해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특성과 함께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으로 LPG수요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LPG업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LPG 경쟁력확보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 등 LPG시장의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왔습니다.

LPG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2001년 가격자유화로 인해 업계가 가격을 결정하고 정부에 신고할 의무도 없어 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가스공사 도매요금을 정부가 통제하는 도시가스와는 달리 LPG는 국제가격을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고,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LPG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LPG 수출입업 등록을 위한 저장시설 요건 완화(연간 내수판매량의 45일분→35일분)하였으며, 또한 LPG가격의 투명화를 위해 공급사의 판매가격을 사별로 매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LPG 수입·생산단계에서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가 걱정성 등을 분석하는 “석유시장 감시단”을 '09.10월에 설립하여 LPG가격을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가격구조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낙후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련하였으며, LPG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DME시범보급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LPG용기 재검사주기 연장에 대해서는 재검업체의 반발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입법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원의 다원화 및 안정적 에너지믹스를 정책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LNG 보급정책과 병행하여 LPG산업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LPG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경쟁력 제고, 유통구조 합리화 및 신규 수요 확대 등에 정책목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낙후된 LPG(프로판) 유통구조 개선 및 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을 통하여 LPG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정부는 「소형 LPG가스용기 직판제도 도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LPG 공급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기고

및 야외·레저용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로 LPG가스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 현행의 LPG가스 수급체계를 선진 유럽형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형용기 직판제도라 함은 소비자의 책임하에 가스를 구입·사용하는 체계로서 영국, 프랑스 등 유럽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시행되고 있으며,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의무를 가스공급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현행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현행 유통구조와 다른 소형용기 직판도입은 5kg로 이하 소형용기를 기존 판매소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일반소매점에서도 소비자 직접 구매·사용함으로써 소비자 구매가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09.12월부터 1년간 LPG 프로판 소형용기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한 후에 금년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LPG용기를 통한 공급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용기 노후화에 따른 재검사 비용증가,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에 따른 잉여용기 발생,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용기관리 비용이 상승하여 LPG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용기 다량 유통에 따른 용기 관리 재검사 비용(용기당 약 10,000원, 이로인해 약 43.5원/kg 관리비용 증가)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LPG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년 상반기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LPG 신규수요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을 촉진시키고 저소득층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08.4월에 특정계층만 LPG연료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관련법을 완화하여 LPG정차를 일반인들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지만 이미 시판중인 경차 판매가가 높아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경차보급 확대를 위하여 LPG업계, 녹색교통운동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향후 시판 예정인 경차의 판매가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자동차제조사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델의 다양화, 안전성 강화 등의 조치로 경차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차에 대한 부정적 소비자 인식을 교정하도록 LPG업계가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LPG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DME+LPG 혼합연료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수요급증에 따른 화석연료 고갈 및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인 DME 기술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 DME는 LPG와 물성이 유사하여 일정량 혼합(20%) 사용시 LPG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DME 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DME-LPG 혼합비율, 공급설비 안전기준, 국산 DME 데모플랜트 건설 등 실증사업이 완료되어 '09.12월부터 가정용·상업용을 대상으로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ME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2013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차량용 디젤연료 및 발전연료 등으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DME 시범보급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독자적인 DME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사우디(ASMG사)와 DME 공동개발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3년부터 연간 약 30만톤의 DME를 도입하게 되면 현행 LPG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ME는 석탄·바이오매스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어 개발이 유보된 중·소규모 가스전에서 생산이 가능하여 에너지원 다원화 가능하고 기존 인프라 개조없이 LPG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여 LPG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DME 상용화시 프로판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LPG 수출입업의 진출촉진을 위해 LPG 저장시설의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LPG 저장시설의 경우 안전확보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현재 LPG 수출입업체는 2개 업체에 불과하고, 현행법상 LPG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공동사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는 LPG 수출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1년이 이상 독점적으로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장시설의 공동사용 허용은 LPG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 초기투자비용문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신규 LPG 수출입업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여 독과점적인 LPG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켜 최종적으로는 LPG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자동차용 LPG 연료 품질기준에 재설정 연구」 용역을 통해 품질문제를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LPG 이물질과 잔류물질 등에 의해 LPG 차량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PG 차량의 주행중 시동 꺼짐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LPG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향후 LPG차량 보급 확대 및 소비자 불만 해소 차원에서 우리부는 관련업체(대한LPG협회, 석유협회, LP가스공업협회)와 공동으로 '09.12월 석유관리원을 용역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품질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 소비자의 안전문제 해결, 양질의 LPG 유통거래, LPG차량의 지속적인 발전과 친환경 LPG연료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LPG 품질기준 고시」 개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여섯째

바우처제도 도입 및 조세감면 추진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의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LPG(프로판) 가격은 중산층이 사용하는 LNG 도시가스 가격의 약 2배 수준으로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서민계층의 연료인 등유·LPG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LPG가격 고가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감면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 한해에도 가스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LPG업계의 담합관정으로 비난 여론이 급등하고 있으며, 기존 LPG 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국내 프로판 수요는 감소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LPG고가로 인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의 소비자에게 탱크로리(T/L)로 LNG를 공급하는 방안도 공공연하게 제기되는 등 LPG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제 LPG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LPG판매가격이 연일 상승하여 LPG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와 LPG업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LPG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LPG시장 안정대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LPG 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규제 완화,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가 적정성을 분석하는 “적유시장 감시단”의 LPG가격 감시 역량 확충, 유통비용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LPG 프로판 소형용기 시범 보급사업 추진, LPG 가격인하를 위한 DME 시범보급사업 추진 및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방안의 법제화 계획 등 LPG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유·LPG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빈곤층의 연료비 지원 계획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LPG산업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LPG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에너지원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LPG관련업계의 공동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LNG와 더불어 LPG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꾸준히 추진할 것입니다.